

'학생의 정서문해력, 왜 중요한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무력감 증가... 학생 정서문해력 교육 필요" 주장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효미 교육연구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정서문해력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왜 정서문해력이 중요한가?'라는 연구보고서에 담았다. 이는 코로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신체·정서·지능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 방역에도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서문해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

는 능력,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 감정을 생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느끼는 학생의 정서문해력 정도'는 평균 2.16(4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또 '정서문해력과 문해력의 관련성 여부'는 평균 3.15로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1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와 초등교사는 각각 3.17과 3.25로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11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도 2.94로 3년 미만 2.68, 3~10년 미만 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교사를 비교했을 때는 여교사(2.97)가 남교사(2.70)보다 '정서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교사들은 정서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 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서문해력 향상 방안으로는 정서문

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심리정서 전문상담사 지원,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학부모 상담 등을 꼽았다. 정효미 연구사는 "정서문해력 교육은 학생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 인지발달 및 독립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단위학교가 정서문해력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가치·태도와 관련된 정서문해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수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성 기자

20~21일 동남아 지역동향 설명회

'한-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 결과 공유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는 (사)한국동남아학회, 서울대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오는 20~21일 양일 간 동남아시아의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차를 맞은 설명회는 (사)한국동남아학회의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의 연례 특집 '지역동향리뷰'의 필진을 초청해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남아시아 전문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

도네시아, 아세안의 2021년 정치, 경제, 국제관계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센터에서 시행한 한-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제성 소장은 "올해 설명회는 작년 대비 한 달 더 일찍 개최되고 모든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청중의 필요에 더 부응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담긴 설명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링크(<http://bit.ly/4회동남아동향설명회>)를 통해 사전 등록해 참가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자랑스런 전북의 아이들, 꼼꼼히 챙길 것"

우리말 교육·기초학력 향상
따돌림·학교폭력 해결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아이 없도록"

"자랑스런 전북의 아이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단
한 명의 아이까지도 챙기는 책임교
육 정책을 제시했다.

서 전 총장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지역은 다문화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부터 언어, 진로·진학 등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챙기는 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전 총장은 전북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 4월 현재 전체 학생의 4.2%에 해당하는 8,105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1.5배 이상 많다고 언급했다.

교육현장을 다니며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만난 서 전 총장은 "다문화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가장 기쁘고 보람 있다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따돌림 등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면서,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단순한 정책적 배려가 아닌 자긍심을 갖고 당당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말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따돌림, 학교폭력 해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다문화 학생의 우리말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실(언어, 기초학력지원 보조교사),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마을 학교)의 3단계 지원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과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언어·기초학력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아부터의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예비한글학교'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돌림과 학교폭력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과 적절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다문화 학부모로 구성된 '찾아가는 다문화상담팀' 운영과 동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책임교육 정책 제시

에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다문화 학생 상담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펼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라중학교 부지의 미래교육캠퍼스 미래사민국재캠퍼스, 이종언어 교육 세계문화 체험 진로·진학 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 적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진로·진학 멘토링제 등의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인식교육과 세계사민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확대·편성하고 이종언어교육과 아시아 쿠킹클래스 등 방과 후 학교 강의를 다문화 학부모들이 전문강사로 참여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다문화 학부모들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내문 등 교육 관련 소식을 다국어로 지원하는 (가칭)전북 교육 다국어 앱을 제작하기로 했다.

서 전 총장은 "다문화 학생들은 전북의 귀한 아이들이며, 그 누구도 그늘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단 한 명의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성·안나 교육재단 8명 이사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는 계획이 이 통지에 담겨있다.

단전 단수로 학교가 문을 닫았던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단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단전 단수 사태로 여러 차례 등급이 연기되면서, 도교육청의 시장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해결의 주체인 이

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
이다.

또한 학교 내의 사유지 문제에 따른 황 전 이사장과 토지 소유주와의 분안 소송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상하수도나 진입로 문제로 인한 등급 중단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임시이사 파견으로 학교 운영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임시이사 추천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향후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의 학교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다시 한번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을 환영한다"며 "변혁의 주체가 될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정상화 방안을 물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논의를 정기적으로 이어 나가길 당부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강사 인력풀' 모집

도교육청, 다문화배경 학생에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21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인력풀'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외국국적,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인력풀은 18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선정된 학교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중도입국학생, 외국인 가정자녀, 결혼 이주자 자녀, 탈북학생, 귀국 학생 등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

적·학문적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게 된다.

한국어강사 인력풀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한국어강사 소개자료, 경력증명서, 응시 관련 자격증 및 학점수 사본 등을 갖춰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8층 다문화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7일이며, 이후 2월 15일 진행되는 사전연수를 이수해야 인력풀에 등록된다.

한편 인력풀 등록 후 선정 학교는 공고 없이 학교 현황과 적합한 강사를 인력풀 내에서 직접 선정해 위·수탁 계약 형태로 채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방과후·시간강사 수당 인상을"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방과후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항근 교육감출마예정자는 지난해 11월 예체능계열 위탁학교 설립 정책을 제안할 당시 3시의 7개 고등학교와 군단위 고등학교 1개 학교의 교사 학생과의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교에서 대략 10% 정도의 학생들이 예체는 계열로의 진학, 진로를 고민하



고 있지만 대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고3이 되면 무관조회를 감행하면서까지, 심할 경우는 서울로 학원을 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 아이들의 요구를 공공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진로의 다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교육과정에 일조하고 있는

방과후 강사의 수당은 현재 시간당 3만2,000원으로 10년간 단 2,000원이 올랐을 뿐,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해 보통 2만원 정도의 자비사가 지급되는데, 통근 거리와 자격조건 등에 따라 학원위의 심의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고는 하나 3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급하게 수업 결산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항근 교육감출마예정자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년째 거의 동결된 강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시·공간을 보장해 방과후 강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농어촌 학교 집중학교 중예출공통캠퍼스 설계에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감과의 소통 시간을 학기별로 1회 진행하며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시민사회 교육지원위원회 및 전북교육회의 일원으로의 참여도 제안했다.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유리한 대신 후보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비정규직 공경수당을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많은 보수는 아니더라도 수년째 동결된 상태인 방과후 강사 및 시간 강사의 수당 인상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

군산대학교 WSET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 사업(R-WeSET2.0)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산대WSET사업단은 2006~2011년 WIE사업을 시작으로 2012~2016년 WSET사업, 2017~2021년 R-WeSET사업에 이르는 여학생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운영해온 실적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R-WeSET2.0 사업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을 육성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우석대, 제3회 전공연계 비교과 운영 성과포럼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제3회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은 역량개발인증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 주관하에 가운데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 후기 시상식과 운영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후기 시상식에서 한서진(생명과학과 2년) 학생이 대상을, 육정수(약학과 3년)·박정하(특수교육과 3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김다현(생명과학과 2년)·조



문정(공연예술뮤지컬학과 4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김주은(스마트라이프공학부 연구교수와 육정수 학생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공리'를, 박정하 학생이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주제로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참석자들은 이날 각 학과에서 운영되는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학과별 진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이날 제3회 비교과 과정 혁신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은성 기자

20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도교육청, 4월 중 원서접수

6월 18일 필기시험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안)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임용시험 일정(안)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시기, 출제기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9급 지방공무원 선발 분야 및 인원·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3월중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

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은 2022년 6월 18일 실시된다. 또한 면접시험은 7월 중 합격자 발표는 8월에 이뤄진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시기, 출제기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했다.

다만,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반드시 '2022년도 제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